

인사말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한국여성재단이 해마다 미션이행과 그 결과를 엮어내는 '연차보고서'를 2007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라는 명제로 펴내는 것은 획기적인 시도로써 그 자체가 참신하다.

근래에 와서 사회구성의 제 3 영역인 비영리 공익단체와 기관들에게 '경영마인드'의 도입이 절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세계적인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에 의하면 경영원리는 원래 비영리단체를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한데서 알 수 있듯이 경영하면 영리기구인 기업에게만 해당 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잘못이다.

경제주체인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향하고 있는 윤리 및 사회책임경영, 환경경영, 혁신경영, 창조경영 등의 지속가능경영원칙은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야 하는 한국여성재단은 물론 사회변화를 견인하는 여성운동체를 비롯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단체들도 적극 수용해야 하는 운영원칙이다.

최근 들어 세계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 한파와 더불어 끓어 닥친 시민사회에 대한 현 정부의 과소평가와 몰이해 여파는 비영리 공익단체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시민운동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생존책으로 도 발휘되고 활용되어야 할 곳이 바로 지속가능경영 원칙들이다.

재단은 그의 기본 기능인 모금과 배분에 있어서 투명성을 견지하며 창의적인 방안모색과 형평성을 유지 등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므로 나름대로 지속가능경영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자부한다.

재단의 2008년도의 경영특성을 살펴보면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는데서 또 다른 과제로 사업의 폭을 넓히기 보다는 이미 착수한 과제의 실효를 제고하기 위해 깊이를 더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나타난다. 심시일반의 풀뿌리 모금방식의 활성화,

여성가장 지원사업의 전국적인 확산, 다문화사업의 ^비다양화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의 후원자와 사업추진자 모두가 이제는 전시효과적인 일회성 사업전개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2008년도 활동을 알차게 하는 데에 큰 몫을 담당해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뜻을 표한다.

오늘의 난국에 비추어 볼 때 더 많은 사회적 서비스를 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새해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파트너 단체들은 이미 체감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희망을 전망하는 것은 수요나 문제가 있는 곳에 관심과 자원은 몰리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선한 사람들의 상생의 공동체 의식은 살아 움직이게 마련이다. ^{이제}

이 때야 말로 파트너 단체들이 서로 격려하며 지속가능경영원칙을 살려서 희망의 싹을 키워 총체적 위기의 터널을 함께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